

# 유럽파 빼고 동아시아안컵 출격... 흥명보號 '새 도전'

축구대표팀 오늘부터 훈련 시작  
7일 중·11일 홍콩·15일 J과 경기  
엔트리 23명 중 20명이 K리그  
김태현·변준수 첫 A대표팀 발탁  
규정상 해외클럽 선수 차출 안 돼  
손흥민·이강인·김민재 명단 제외

북중미행을 확장한 흥명보호가 본격적인 월드컵 본선 준비에 나선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소집해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이번 소집은 우선 오는 7~16일 경기도 용인 등에서 개최되는 2025년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본선 무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은 지난달 막을 내린 북중미 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지난달 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 최종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흥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확정했다.

올해 동아시아안컵에서 우리나라는 7일 오후 8시 중국과의 대회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 일

본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차례로 대결한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서 해외파를 강제로 차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흥명보 감독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박용우(알아인), 조유민(샤르자) 등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부르지 못했다. 대신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선수들 로만 선수단을 꾸렸다.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돼 추가 발탁한 주민규(대전),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을 포함해 23명이 K리그(K리그1 22명·K리그2 1명) 소속이다.

나머지 세 명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엔트러스), 미드필더 나상호(마치다 젤비아), 공격수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이다. 2023년 6월 이후 태극마크와 인연이 끊겼던 나상호는 2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장신 스트라이커 이호재(포항)를 비롯해 김태현(가시마), 변준수(광주),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에 강상윤, 모재현 9명은 A대표로 뽑힌 게 처음이다.

예선을 치르면서 흥 감독의 월드컵 본선 엔트리 구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원정에 나설 9월 소집 때부터는 해외와 주축 선수들이 모두 참여할 터라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드러내 흥 감독의 마음을 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남자부는 2003년, 여자부는 2005년 시작한 동아시아안컵은 동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로 남녀부 4개국씩 참가해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린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NC킬러 채은성... 화끈한 '해결사' 역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채은성(사진)은 올해 NC 다이노스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썰렁 날아다닌다.

채은성은 1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NC와 경기 8회에 3점짜리 홈런을 때려 냈다.

이날 한화는 0-4로 끌려가다가 5회 노시환, 7회 문현빈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따라붙었다.

8회말에 5-4로 역전하고 계속된 2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채은성은 승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3점 홈런을 터뜨려 1만 7000여 홈 팬들에게 짜릿한 8-4 역전승을 안겼다.

채은성의 올해 성적은 타율 0.290, 홈런



1일 홈경기 쓰리런... 역전승 축포 울리즌 홈런 12개 중 7개가 NC전

12개, 42타점이다. 이 가운데 NC를 상대로 타율 0.421, 홈런 7개, 17타점을 기록하며 유독 강한 면을 보인다.

NC전에서 홈런 7개를 몰아친 반면 다른 팀에는 홈런 2개를 때린 적이 없을 정도로 NC만 됐다.

타점도 NC전 17타점 다음으로는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전 5타점이 가장 많은 정도로 차이가 크다.

채은성은 1일 경기를 마친 뒤 이글스TV와 인터뷰를 통해 "조반에 끌려가던 경기

를 선수들이 잘해 줘서 역전할 수 있었다"며 "2아웃이었고, 1점만 더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운 좋게 노렸던 공이 들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1일 경기에는 유독 상대 팀에 강한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

LG 트윈스 구본혁은 롯데 자이언츠 원정 경기 기다려진다.

올해 타율 0.239, 홈런 1개, 22타점의 구본혁은 롯데 상대로는 타율 0.400, 7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에서 타율 0.400, 4타점을 수확

했다. 다른 구장에서는 타율 0.300을 친 곳도 없다.

타점 역시 홈인 잠실과 부산을 제외하면 2타점을 올린 장소가 없다.

1일 구본혁은 부산 원정에서 3타수 1안타, 2루타와 볼넷 1개씩 기록하며 부산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 갔고 LG도 롯데에 3-2로 이겼다.

키움 박주성은 1일 kt wiz와 경기에서 입단 6년 만에 첫 선발승을 따냈다.

kt전에 선발로 나온 박주성은 6이닝 3피안타, 볼넷 1개, 삼진 5개로 2실점 해 첫 선발승을 기록에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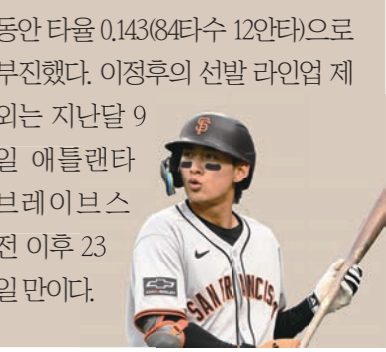
이날 경기 전에는 2022년 구원승 한 번이 유일한 승리 기록이었고, 이때도 제물은 kt였다.

## 4경기 침묵 이정후 23일 만에 선발 제외

타격 슬럼프에 빠진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이정후는 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이정후는 미국 현지 날짜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타율 0.143(8타수 1안타)으로 부진했다. 이정후의 선발 라인업 제외는 지난달 9

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23일 만이다.



# Inhancer Plus<sup>™</sup>

##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